

GV70·GV70 전동화 모델, 美 충돌평가 '안전성 최고'

IIHS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으로 상향 충돌 안전·예방 성능 입증...강화 기준 충족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가 다시 한번 최고의 안전성을 입증했다. 제네시스는 23일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안협회(이하 IIHS, 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가 발표한 충돌평가에서 GV70과 GV70 전동화 모델이 최고 등급인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 (이하 TSP+, Top Safety Pick+) 등급으로 상향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로 총 7개 차종이 TSP+에 선정된 제네시스는 올해 강화된 기준으로 평가받은 자동차 브랜드 중 가장 많은 TSP+ 선정 모델을 보유한 브랜드로 등극하는 영예를 안았다. (※ 2위 마쓰다 (6개), 공동 3위 혼다, 현대차 (4개))

제네시스는 올해 2월 ▲GV60 ▲G80 전동화 모델 ▲GV80, 올해 4월 ▲G80 ▲G90에 이어 이번 ▲GV70 ▲GV70 전동화 모델까지 강화된 충돌평가서 TSP+ 등급을 받으며 다시 한번 최고 수준의

충돌 안전 및 예방성능을 입증했다. IIHS는 1959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매년 미국시장에 출시된 차량의 충돌 안전 성능과 충돌 예방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충돌평가 결과는 올해부터 더욱 강화된 평가 기준을 충족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최고 안전성을 나타낸 차량에는 TSP+ 등급을, 양호한 수준의 성적에 낸 차량에는 TSP 등급을 매긴다.

올해부터 강화된 충돌평가는 뒷좌석 탑승객 보호와 보행자 충돌 방지 시스템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 우수 등급을 획득하기가 어려워졌다.

전면 충돌 평가에는 뒷좌석 데미(인체 모형)가 추가로 배치돼 전방 충돌 시 뒷좌석 승객의 상해 가능성을 점검하며 TSP+ 획득을 위해서는 해당 항목에서 '양호함(acceptable)' 등급 이상을 받아



제네시스가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안협회(이하 IIHS, 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가 발표한 충돌평가에서 GV70과 GV70 전동화 모델이 최고 등급인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 (이하 TSP+, Top Safety Pick+) 등급으로 상향됐다. 사진은 제네시스 GV70. <현대자동차그룹 제공>

야한다. 또한 전방 스몰 오버랩 충돌 평가의 경우 기존에는 운전석과 조수석 부분의 평가 등급을 각각 부여했으나, 이번부

터 IIHS는 운전석과 조수석 스몰 오버랩 평가를 하나로 통합해 둘 중 낮은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부여한다. 여기에 보행자 충돌 방지 평가의 경

우 기존에는 주/야간 테스트를 각각 진행해 주간만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으면 TSP 요건을 충족했으나, 이번부터는 주/야간을 통합한 복합 테스트에서

'양호함' 이상의 등급을 획득해야 TSP+/TSP를 받을 수 있다.

TSP+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전방 스몰 오버랩 ▲전면 충돌 ▲측면 충돌 등 총 3개 충돌 안전 항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훌륭함'을 획득해야 한다.

또한 주/야간 전방 충돌방지 시스템 테스트(차량과 보행자)에서 '양호함' 이상의 등급을, 전조등 평가는 차량의 전체 트림에서 '양호함' 이상 등급을 받아야 한다.

제네시스는 모든 모델에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등 다양한 첨단 주행 안전 보조 기능들을 대거 탑재해 우수한 안전성을 갖춘 차량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이번 GV70과 GV70 전동화 모델의 TSP+ 획득을 비롯한 다수 차종의 최고 등급 획득은 가장 안전한 차량을 제공하기 위한 제네시스의 노력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

기아-포터투닷-지오템 'PBV 차량관리 시스템 개발' 힘 모은다

기아가 포터투닷, 지오템과 함께 'PBV 차량관리 시스템(Fleet Management System, FMS)'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한다. 기아는 최근 캐나다에 위치한 지오템 본사에서 기아 PBV사업부장 김상대 전무, 지오템 최고매출책임자(CRO) 루이스 더 용(Louis De Jong)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PBV 차량관리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포터투닷은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센터로, 그룹사 차량의 핵심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지오템은 세계적인 커넥티드 차량 기술 제공 기업으로 뛰어난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160개국에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PBV 이용 고객에게 최적화된 PBV 솔루션을 제공하는 'FMS 개발'에 3사가 뜻을 모아 이뤄졌다. FMS는 차량 운행 및 관제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다. 주로 렌터카, 물류 사

업자 등 비즈니스 목적으로 다수의 차량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지만 차량 정보데이터 수집을 위해서는 별도의 기기가 필요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별도의 기기 없이 클라우드 서버를 기반으로 차량 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FMS를 개발한 뒤 2025년 양산 예정인 기아 최초의 전용 PBV 'PV'에 FMS를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량 정보데이터를 분석·활용해 최적의 운행 경로 및 안전 운전 등을 제안하는 운전자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기아 PBV 디스플레이에 기본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기아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객에게 비즈니스 환경에 최적화된 토탈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함과 동시에, 우수한 차량 정보데이터 활용 능력 및 소프트웨어 개발 경쟁력을 앞세워 'Platform Beyond Vehicle' 전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채만 기자

현대차·기아 'IDEA 디자인 어워드' 12개 수상

최고상 3개·큐레이터스 초이스상 등 경쟁력 입증

현대자동차·기아가 세계적인 디자인 대회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3개나 거머쥐며 글로벌 디자인 경쟁력을 과시했다.

현대차·기아는 미국 산업디자인협회(IDSA, Industrial Design Society of America)가 주관하는 '2024 IDEA 디자인 어워드(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s)'에서 금상 3개와 큐레이터스 초이스상(Curator's Choice Award)을 포함해 총 12개의 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독일의 'iF 디자인 어워드', '레드 닷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대회로 손꼽히는 IDEA 디자인 어워드는 1980년부터 시작된 북미 최고의 디자인 대회로 매년 디자인 혁신, 사용자 혜택, 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심사 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문별 최고의 디자인을 선정한다.

이번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 현대

차 기아는 자동차 운송(Automotive & Transportation) 부문에서 현대차 '아이오닉 5 N'과 기아 'EV9'으로 최고상인 금상을 각각 수상했다.

특히 EV9은 iF 디자인, 레드 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각각 금상 및 최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이번에도 금상을 수상해 세계 3대 디자인 대회 모두에서 최고상을 거머쥐는 쾌거를 이뤘다.

또 하나의 금상을 차지한 아이오닉 5 N은 앞서 2021년 금상을 수상한 아이오닉 5의 디자인을 계승함과 동시에 ▲N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 ▲EV N 전용 루미너스 오렌지 스트림 ▲N 전용 리어 스포일러 등 차별화된 디자인이 적용돼 고성능 차량에 특화된 디자인을 갖추고, N 브랜드의 디자인이 적용된 ▲스티어링 휠 ▲아웃스커프 ▲메탈 페달 ▲버킷 시트 등으로 감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포니 헤리티지 캠페인은 현대차의

브랜드 우수성을 알리며 브랜딩 부문에서 금상을 차지했다. 특히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된 포니 헤리티지 컬렉션은 전체 IDEA 디자인 어워드 출품작 중 단 하나의 작품에만 수여되는 큐레이터스 초이스상(Curator's Choice Award)에도 선정돼 이목을 끌었다.

현대차 싼타페와 싼타페 XRT 콘셉트는 자동차 운송 부문에서 각각 동상과 입상을 수상했다.

동상을 차지한 싼타페는 박시(Boxy)한 형태의 강인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긴 휠베이스와 넓은 테일게이트에서 비롯된 유니크한 실루엣이 강렬한 인상을 준다. 싼타페 XRT 콘셉트는 싼타페를 기반으로 루프랙 위화물 캐리어, 테일게이트에 부착한 사다리과 카고 박스 등 아웃도어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되도록 디자인됐다.

제네시스 GV80 쿠페는 역동적인 우아함에 기반한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며 입상에 선정됐다.

제네시스 최초의 쿠페형 SUV인 GV

80 쿠페는 럭셔리 SUV의 고급감과 편의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유의 쿠페 전용 디자인을 더했다. 역동적이면서도 과감한 실루엣이 적용돼 금방이라도 질주할 것만 같은 날렵한 측면 디자인을 바탕으로 고성능 감성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이 밖에도 현대차·기아는 패키징 부문에서 ▲지속가능한 포장 시리즈가 동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 자동차 운송 부문에서 ▲공공모빌리티 '스페이스(SPACE)' ▲가정용 전기차 충전기, 브랜딩 부문에서 ▲헤리티지 매거진, 아웃도어 부문에서 ▲멀티랜턴 등이 디자인 우수성을 인정받아 입상에 선정됐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현대차·기아가 고객의 정서적 니즈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고객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퀄리티 품질

FREE 전국 택배 무료 배송!
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

PHOENIX

고블 G-07 프리미엄

럭셔리 프리미엄 상급자용

PHOENIX

피닉스 K-07

럭셔리 중상급자용

PHOENIX

피닉스 K-06

중상급자용

PHOENIX

피닉스 K-03

초보 중급자용

PHOENIX

피닉스 G-01

초보 입문자용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